

[로스쿨 소식]

법학적성시험 표준점수 산출방식 변경 안내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전문가 자문회의, 이사회 및 총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의 표준점수¹⁾ 산출방식을 변경한다고 발표하였다.

2. 2020학년도부터 적용하는 점수 체제는 다음과 같다.

- (1)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의 정답 문항은 1점, 오답 문항은 0점으로 채점한다.
- (2) 언어이해 영역은 평균 45, 표준편차 9인 표준점수를 사용한다.
- (3) 추리논증 영역은 평균 60, 표준편차 12인 표준점수를 사용한다.

영역	문항 수	표준점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언어이해	30	45	9	0~90
추리논증	40	60	12	0~120

1) 표준점수: 원점수 분포를 특정평균과 표준편차를 갖도록 변환하여 응시자가 해당 영역 내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나타내는 점수

※ 2019학년도 시험까지는 평균 50, 표준편차 10인 표준점수(T점수, 범위 0~100점)를 사용하였음

(4) 이와 같은 변경은 기존의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 점수에 각각 0.9와 1.2의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다.

3. 협의회는 규범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법학적성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추리논증 영역 비중을 강화하는 법학적성시험 개선계획(2016.12.1.)을 발표한 바 있다.

(1) 2018학년도 시험에서는 추리논증 영역 35개 문항에서 '규범 이해 및 적용' 유형의 비율을 높여 출제하였고, 2019학년도 시험에서는 문항수를 40개로 확대하여 응시자의 사고능력에 대한 정밀한 측정과 세밀한 등급 부여가 가능해졌다.

(2) 이러한 개선계획 취지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시 각 학교에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2020학년도 시험부터는 표준점수 산출방식을 변경하여, 추리논증 영역에 언어이해 영역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자 한다.

4.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2019년 7월 14일(일)에 실시하고, 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2019년 2월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